

가야 중전이 성립한다. 남북관계는 1991년 남북 합의문에 기초에서 발전했으며, 이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의식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3국인지 4국인지 문서상 모호하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중국이 들어오는 게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다.

- **문정인** 동의하며, 평화 전략에 대해 찬성한다.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처럼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평화를 추구하며 비핵화는 전혀 진전 없는 것이 가능한가?
- **필립 켈리코** 정치적으로 미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비핵화는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비핵화를 내세울수록 한국이 소외된다. 남북 문제가 비핵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양자 간 대화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 **문정인** 같이 추진하는 건 안 되는가?
- **필립 켈리코**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마 3각 구도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이 대화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일 프로세스가 핵심이다. 한국이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질의 응답

- Q.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안전 보장하며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 A. **문정인** 안전 보장은 즉 체제 보장이다. 안전 보장에는 3가지가 있다. 정치적 보장: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미국이 김정은의 생존과 정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북한의 사회체제를 폄하하면 안 되며 국교 정상화를 해야 한다. 군사적 보장: 북한은 전략 자산의 전개를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여 합동 훈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재래식 핵 위협을 하지 않는 불가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제적 보장: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국제통화기구(IMF)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해외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이며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 Q. 비핵화 관련 협상 자체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유연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A. **필립 켈리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게 적용된 제재 조치를 한 번에 철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지, 어떠한 목적 달성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Q. 4자 회담과 6자 회담은 좋은 플랫폼이다. 4자 회담이 좋은가, 6자 회담이 좋은가?
- A. **닝푸쿠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전환에 있어 6자 회담의 역할은 모두 알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북미 양자 간 협의를 지지하고 남북협상도 지지한다. 중국은 양자 간 협상을 기반으로 적절한 시기에 4자나 6자를 하기 바란다.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자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나서 조속히 4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A. **문정인** 6자 회담은 죽은 것 아닌가?
- A. **닝푸쿠이** 6자 회담은 각 당사자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비핵화의 중요 플랫폼이다. 적절한 시기에 회복해야 한다.
- A. **문정인** 협상 전제조건을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모든 어젠다를 열어두자는 켈리코 교수의 견해 매우 동의한다. 닝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대상자이며 중요한 당사자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공헌국이 되고 싶은 점을 강조했다. 외교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별대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교육, 문화, 과학을 통한 다자협력



오드레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기조연설 및 대담 **오드레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담 **박상미** 한국어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조연설 **오드레 아즐레**

이처럼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독특한 용암 동굴들과 화산지형으로 그 지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풍성한 자연이 그 아름다움을 한껏 펼치고 있는 환상적인 섬입니다.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도민들은 화산 지형과 섬이라는 생활 무대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만의 생활양식, 수공업 및 풍습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지요. 그 예로 물질을 하며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사는 해녀 전통문화를 들 수 있는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올라 있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나는 이번 제주 방문 직전에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자연유

산 및 역사 유적지들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이라는 개념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의 출신이나 문화, 전통이 제각기 달라도, 우리 모두는 인류 유산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이어받았기에 이를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의 노력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뛰어넘어 모든 문화가 공통적으로 지닌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편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인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네스코와 한국 간 역사적 관계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유네스코의 평화 수호 임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한국은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으로 유네스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유산에 더해 11곳의 세계문화유산과 19개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네스코는 저희 기구의 창설 초기부터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기에 이 자리에 선 것이 더욱 기쁩니다.

1950년 유네스코는 유엔의 부름에 응하여 전쟁

의 참화 속에 던져진 시민들을 위해 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긴급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네스코가 담당했던 핵심 미션 중 하나는, 당시의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유엔의 이상과 집단 안보 원칙을 이해시키기'였습니다. 이 이상은 배움을 통해 습득할 수 있고,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으며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평화와 협력, 다자주의, 힘보다는 법치를 우선하는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상호 이해 그리고 연대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전파됩니다.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 - 교육

한국은 역사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평화 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무너지기 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정학적 위협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어왔고 중대한 안보 사안들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재건을 이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발전과 혁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교육 분야에 쏟은 투자 덕분에 이러한 발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50년대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를 적극 활용해 세계 교육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받은 도움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3월 파키스탄 펀지브주와 길기트발티스탄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강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짐바브웨 학교 지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장비 구입에도 동참했습니다.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한국의 이 같은 평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2001년 제주포럼 출범으로 이어졌고, 이후 거듭된 만남은 한국의 이와 같은 정신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네스코가 다자 협력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 저희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주의 옹호

무엇보다 다자주의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시도들과, 강한 자의 편을 들며 국제 협력을 일련의 양자 협정으로 한정시키는 힘의 정치로 인해 오늘날 다자주의는 우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다자주의에 대한 이 같은 배경은 단순히 아우타르키나 전체주의 정권만의 산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책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자 협력과 그 타당성을 기지로 한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더 설득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자주의는 19세기 말 발흥했는데, 그 연유는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우선 무기의 현대화로 전쟁은 어느 국가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제양이라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만, 당시의 법률가, 외교관, 정치인이나 공법학자들과 같은 시대의 관찰자들은 전쟁의 폐해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몽시대부터 이어져온 의식의 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으로 왕조의 이익보다는 인류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9세기의 철도, 무선전신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의 발명으로 절정에 달한 교류와 소통의 발전이 주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전 세계가 개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기술로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국가 간 협력기구들이 창설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토대로 19세기 말에는 '법적 평화주의', 즉 법률, 협력, 협상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의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 사용보다는 중재를, 끝을 모르는 군비 경쟁보다는 군비 축소를 우선하며, 예방적 외교를 중시하는 체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법적 평화주의는 국제연합기구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기구의 무능과 실패를 지적하지만 배인은 국가들의 개입 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활발한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심과 회의주의를 타파하고,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이 세상의 쟁점들을 선동적인 관점으로 단순화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자주의와 예방적 외교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강력하게 전명해야 합니다.

다자주의 옹호의 필요성은 적어도 세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느 때보다 상호 의존적이며 무수히 많은 협력 고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호 의존성과 연결 관계들은 거의 불가역적으로,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독불장군식으로 단독행동을 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 여론도 속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초국적으로 대규모 소통과 교류, 연대의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설사 포퓰리스트적인 주장에 잠시 흔들릴 수 있다 해도, 시민사회들은 강력한 집단 행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자주의를 활력 있게 추진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국경을 초월한 행동력과 동원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과제들에 응전해야 하고, 제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해도 혹은 국제적 규모의 기구나 하더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전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규제 필요성,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 인구의 급증, 무력 분쟁, 테러리즘과 같이 우리에게 공동의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우리는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다자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지요. 가끔은 다자주의가 도구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유네스코는 이에 대한 대가를 주기적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자주의는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자기비판을 통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속가능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자 협력만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유네스코의 임무: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다자 협력

우선 유네스코 임무의 바탕이 되는 기본 철학을 말씀드린 후, 교육 분야와 유산 보호 및 가치 제고 분야에서 저희가 펼치고 있는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철학입니다. 저희는 총체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와 발전은 그에 유리하고 적절한 일련의 조건들이 낳는 결과물이며, 이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화와 발전은 다른 모든 목표들이 달성되었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유엔이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17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어젠다의 모든 발전 목표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빈곤 축소는 양성평등, 적절한 학습과 지식의 전수 없이는 불가능하며, 환경적 제약에 대한 고려나 미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교육

2030 어젠다는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야심 찬 안건입니다. 유네스코는 목표 4번, 즉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실현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입니다. 2030 어젠다 실현에서 핵심적 원동력이 되는 목표로서, 다른 모든 지속가능한 목표들이 이 4번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가능한 발전의 기본 토양이기에, 유네스코의 제1 사명 또한 교육입니다.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회원 국가들이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과 교사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는 소녀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녀들이 대상이 되는 모든 차별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불평등한 교육 기회가 이 모든 차별의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과학이나 문화와 마찬가지로 공공복지에 속합니다. 가장 유용한 혁신들과 가장 적절한 교수법들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전 세계의 교육 공동체 내에서 '굿 프랙티스의 공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 시민사회, 젊은이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아우르는 여러 워크숍, 세미나, 포럼 및 회의를 세계 곳곳에서 개최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여러 연구와 보고서들의 출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여러 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방콕 사무소는 유네스코의 지역 활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한국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분열돼가는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창

의성, 혁신적 감각, 생물 및 문화 다양성의 존중, 비판적 사고가 길러집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예로 들면,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교육자 양성 기관과 대학을 도와 교육과정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산의 가치 제고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또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는 고정된, 경직된 자산이 아닙니다. 문화는 진화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재창조되는, 살아 숨 쉬는 유산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상징적인 가치의 변질 없이 부와 고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네스코는 한국과 협력하여 '세계 유산,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동체의 참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유적지 보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리적 수공예 활동 및 건축 기술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정신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현재 이라크 모술 구도시의 재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도시의 고치를 재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설의 중심에 사람을 우선으로 두고 전쟁 전 이 도시의 활력의 원천이었던 모술만의 정신을 문화와 교육을 통해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강력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동체 일원들에게 존재의 보람과 소속감, 자신감과 자존감을 일깨우고 강화시켜주는 유산의 보존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공동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혐오와 폭력의 씨앗이 되는 소외를 예방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유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유산 존중에 긍정적인 토양을 조성할 수 있고, 사회 통합 역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의 기틀이 되는 유네스코 정신은 바로 국가 간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우리 사회의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비정부 기구(NGO), 시민사회의 주체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까지 포함하는 다자적 협력의 정신입니다. 이 협력 없이는 발전은 위태로울 뿐이고, 평화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 협력의 원천 중 하나는 사상의 교류이며 지식과 지혜의 공유입니다. 제주포럼은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서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의 목소리를 전해드릴 수 있어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답

● **박상미** 한반도가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다. 남북 간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오드레 아줄레** 남북한이 유네스코 협력국으로 함께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 차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가 더 효과적이다. 유네스코를 통해 문화, 과학 커뮤니티를 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네스코는 이미 북한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다. 지질학, 문화유산 보존, 고고학 영역이다. 다만 상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전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음악, 전통 무술, 씨름 같은 분야에서 합동으로 팀을 이뤄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남북한 공동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의 교류 또한 중요하며, 유네스코는 이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박상미** 제주도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가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제주의 역할이 유네스코의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 **원희룡** 제주도와 유네스코는 세계평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가는 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5년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까닭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인 동시에 국제적 분쟁 예방 및 갈등을 해결하는 완충 선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이런 뜻을 되새겨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제주도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 증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평화라는 개념이 개인과 사회,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도 평화지만,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활동이다. 인권을 개선하고, 성차별을 없애는 것도 평화 활동이다.

제주가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평화도 세계평화를 여는 새로운 길일 것이다. 제주 4·3을 화해로 풀어나가는 것 또한 인간 역사의 평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평화는 연결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와 제주도가 함께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더불어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문화유산 보존 임무에 가까이 동참해 나가고자 한다.

● **박상미** 유네스코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오드레 아줄레** 자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목표는 개발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장(site)을 관리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문화유적지의 방문객 수를 제한하

고 있다. 장기적으로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것도 중요하다.

● **박상미** 제주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 중에서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이미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빼어난 제주 자연의 유네스코 등재란 이를 잘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전 세계인이 제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보존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 **원희룡** 세계자연유산 지정은 곧바로 보존 임무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 경쟁이 풍부한 지역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거문오름의 경

우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탐방객 수 제한, 예약제, 유료화 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주도는 4가지 보존 의무를 지니고 있고, 4가지를 전부 지닌 유일한 지역이다. 보존 의무를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 그 해당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주도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오드레 아줄레** 제주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의식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등재되고 난 다음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호초가 있었던 지역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산호초가 파괴돼 다시 회복한



다음 재등재된 사례가 있다. 여러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박상미** 자연환경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적응하며 만들어진 여성 중심의 공동체 문화인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에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다. 제주 해녀문화가 급변하는 한국 사회, 제주 사회에서 어떻게 잘 보존되고 문화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보호와 진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 **원희룡**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는 보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제주도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제주 해녀의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함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해녀협회를 만들었다. 해녀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라 가격을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나이 드신 해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다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바다가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다. 해녀 보존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다자원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도에서는 바다자원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이며, 전담부서 설치는 물론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다.

● **오드레 아줄레** 제주 해녀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고, 자연과 인간의 교류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자연과 인간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해녀의 훌륭한 전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다가 깨끗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유네스코는 과학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바다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한 갖추고 있다. 2021 해양학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제주 또한 생태학과 해양학 분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공동체가 모델로 삼을 만한 곳이다.

● **박상미** 한국이 교육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오드레 아줄레** 중요한 것은 모든 이의 교육이다. 평생교육 제공이다. 사회 진화, 기술 진화, 이 목표는 대단히 야심 차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단하다. 한국의 성공은 교육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 교육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종종 연설에서 어린 시절 유네스코 책을 통해 글을 배웠다고 언급한다. 교육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성공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국의 책임은 지원이다. 교육 부분이 미진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특히 여아 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데,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여아 교육 지원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 **박상미** 지속가능한 성장 등 유네스코의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 **원희룡**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보존 의무를 지니고 평화, 생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